

30대 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분석

2014.9.19

목 차

< 요 약 >	5
I. 조사 개요	8
1. 조사목적	8
2. 조사대상	8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8
4. 조사내용	8
II. 조사결과 : 30대 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분석	9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9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10
3. 시사점 및 제언사항	13
(1) 조사결과와 시사점	13
(2) 제언사항	13
< 참고문헌 >	14

■ 이 자료는 사업팀 김민정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610 FAX : 02-3771-0143 E-mail : kmj@fkilsc.or.kr

1.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2.25~2014.3.31(35일간)
-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4.2월 기준) 상위 30대 그룹, 공기업, 워크아웃기업, 금융기업 제외, 차순위 그룹(한진중공업, KCC 등) 포함
- 조사방법: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전화조사와 E-mail 조사 병행)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지난해 30대 그룹은 협력사에 2012년 대비 약 2.4% 증가한 1조 5,942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7.6% 증가한 1조 7,1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올해 30대 그룹이 협력사에 1조 7,161억 원을 지원함에 따라 협력사 지원실적은 2010년 8,922억 원, 2011년 1조 5,356억 원, 2012년 1조 5,571억 원, 2013년 1조 5,942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1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원규모를 유지하였고, 2010년에 비해 약 1.9배 증가하였음
- 또한, 내수부진이 장기화하여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기업들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전년 대비 30대 그룹의 당기 순이익¹⁾은 약 2.3% 감소하였지만,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을 지난해보다 약 7.6% 늘리는 등 협력사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판매·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R&D지원, 보증·대출 지원 順으로 우선 순위가 유지되어 협력사 지원의 순위 변동은 없음
 - 지난해 판매·구매 지원(33.4%), 생산성 향상(26.1%), R&D지원(17.1%), 보증·대출 지원(16.0%), 해외 판로개척(4.5%), 인재양성(2.9%) 順으로 조사된데 이어, 올해도 판매·구매 지원(32.6%), 생산성 향상(26.4%), R&D지원(16.6%), 보증·대출 지원(16.6%), 해외 판로

1)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3.12), 30대 그룹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2.3% 감소함. 기업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기업이 투자 대비 미래 기대하는 수익률인 내부 수익률도 2011년 11.26%에서 2012년 9.49%로 감소함.

개척(4.9%), 인재양성(2.9%) 順임

- 한편,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에서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대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판매·구매 지원은 전년 대비 약 7.9% 감소(8,593억 원 → 9,273억 원)함
 - 보증·대출 지원은 2012년 3,081억 원에서 지난해 2,554억 원으로 약 17% 감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1% 증가한 2,8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해외 판로개척 지원은 2012년 980억 원에서 지난해 715억 원으로 약 27% 감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833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판매·구매 지원은 2012년 4,470억 원에서 지난해 5,324억 원으로 약 19%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한 5,592억 원이 지원 예정임
- 또한, 올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지원,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분야의 지원이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하여 7,888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지난해 30대 그룹은 R&D지원에 2012년 2,992억 원 대비 약 8.9% 감소한 2,724억 원을 지원하였던 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8% 증가한 2,8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생산성 향상 지원은 2012년 3,561억 원 대비 약 17%증가한 4,167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8.6% 증가한 4,527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인재양성 지원은 2012년 487억 원에서 지난해 458억 원으로 약 5.9% 감소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한 506억 원이 지원 예정임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 30대 그룹은 내수부진과 수익성 악화에도 4년 연속 협력사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2.4% → 7.6%)하며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30대 그룹은 보증·대출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국내 판매·구매 지원 등 협력사 경영 안정 분야에 전체 협력사 지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지원,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의 지원도 꾸준히 늘리고 있음
- 대기업은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대·중소기업 모두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해야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생력

향상을 위해 R&D, 설비 등에 투자하며 기업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정부는 동반성장의 목표를 생산적 파트너십 강화에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이 발휘하도록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2010.9.29)」 이후,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구매, 생산성 향상, R&D, 보증·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음
- 이에, 2014년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을 최근 4년(2010~2014)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한편, 30대 그룹이 금년에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사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Win-Win)할 수 있는 생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대기업·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보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7) 중 상위 30대 그룹
 - 공기업·위크아웃기업·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 차순위 기업(한진중공업, KCC 등) 포함
 - 조사응답률: 86.7%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전화조사와 E-mail 조사 병행)
- 조사기간: 2014.2.25~2014.3.31(35일간)

4. 조사내용

- 30대 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 판매·구매 지원, 보증·대출 지원, R&D, 생산성 향상 등 30대 그룹의 협력사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대여성 자금지원 등 간접지원 금액은 조사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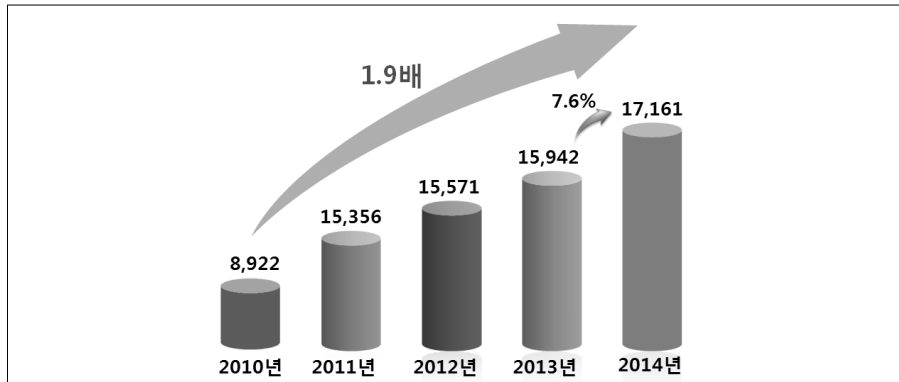
Ⅱ. 조사결과: 30대 그룹의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30대 그룹은 2013년도에 전년보다 약 2.4% 증가한 1조 5,942억 원을 협력사에 지원한데 이어,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7.6% 증가한 1조 7,1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올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은 1조, 7161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협력사 지원 실적은 4년 연속 (2011년 1조 5,356억 원, 2012년 1조 5,571억 원, 2013년 1조 5,942억 원) 1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원규모를 유지함
-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 증가율은 약 7.6%로 지난해 지원실적 증가율(2.4%)보다 약 3.2배 높고,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약 1,2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추이(2010~2014년)>

(단위: 억 원)



- 한편, 주요 대기업들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동반성장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600대 기업의 평균 기업경기실사지수(BSI)²⁾는 105(2010), 96.2(2011), 90(2012), 92.2(2013)로 조사됨과 더불어 분기별 경제성장률³⁾이 3분기 연속 0%대 수준임

2) 기업경기실사지수 2010~2014년 조사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14.5)를 평균하여 산출(실적치의 계절조정치 기준)

3) 201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조사결과(한국은행, 2014.9)

- 실제, 원화 강세로 인한 생산물의 원화 환산액 감소, 경기 회복세 부진, 소비심리 회복 지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2014년에도 BSI는 100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이처럼 내수 침체 장기화, 경제성장률 저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협력사 지원규모를 약 7.6% 늘려,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동반성장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임

2.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3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4년 지원계획

- 30대 그룹은 보증·대출, 해외 판로개척, 국내 판매·구매 등 협력사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절반 이상임
- 지난해 분야별 지원실적은 판매·구매(33.4%), 생산성 향상(26.1%), R&D(17.1%), 보증·대출(16.0%), 해외 판로개척(4.5%), 인재양성(2.9%) 順으로 나타남
- 반면, 올해의 분야별 지원실적은 판매·구매(32.6%), 생산성 향상(26.4%), R&D와 보증·대출(16.6%), 해외 판로개척(4.9%), 인재양성(2.9%) 順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순위 변동은 없고 비중만 다소 변동됨

<30대 그룹의 분야별 협력사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추이(2010~2014년)>

(단위: 억 원, %)

지 원 실 적 \ 지 향 목	R&D (비중)	생산성 향상 (비중)	인재양성 (비중)	보증·대출 (비중)	해외 판로개척 (비중)	판매·구매 (비중)
2010년 (실적)	2,244 (25.2)	1,563 (17.5)	268 (3.0)	802 (9.0)	17 (0.2)	4,028 (45.1)
2011년 (실적)	4,191 (27.3)	2,188 (14.2)	401 (2.6)	2,987 (19.5)	320 (2.1)	5,269 (34.3)
2012년 (실적)	2,992 (19.2)	3,561 (22.9)	487 (3.1)	3,081 (19.8)	980 (6.3)	4,470 (28.7)
2013년 (실적)	2,724 (17.1)	4,167 (26.1)	458 (2.9)	2,554 (16.0)	715 (4.5)	5,324 (33.4)
2014년 (계획)	2,855 (16.6)	4,527 (26.4)	506 (2.9)	2,848 (16.6)	833 (4.9)	5,592 (32.6)

- 한편,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계획에서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매·구매, 보증·대출, 해외 판로개척은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함(8,593억 원 → 9,273억 원)
- 30대 그룹은 지난해 해외 판로개척에 2012년 980억 원 대비 약 27% 감소한 715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6.5% 증가한 8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해외 판로개척 사례) 한화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등 100여 개 협력사의 1500여 명 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트랙 레코드 구축을 지원하여 해외 동반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에 앞장섬
- (해외 판로개척 사례) 한진은 품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한항공·보잉·국내 협력사의 노하우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인하대·항공대 등 그룹 산하 대학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해외기업·그룹 산하 대학과 국내 협력사 간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함
- 판매·구매 지원은 2012년 4,470억 원에서 지난해 5,324억 원으로 약 19%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한 5,5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에는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축소하여 265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내수시장 판로개척 중심의 판매·구매 지원은 854억 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지난해 보증·대출 지원은 2012년 3,081억 원에서 약 17% 감소한 2,554억 원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1.5% 증가한 2,848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보증·대출 지원 사례) KT는 콘텐츠투자펀드·대출펀드·전략투자펀드 등 2,391억 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외부 아이디어 시범적용에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며, 미래융합 서비스 공동개발에 대한 보증·대출을 지원함
- 또한, 올해는 협력사에 대한 전체 지원에서 생산성 향상, R&D, 인재양성 분야가 차지하는 지원 비중이 지난해 약 46.1%에서 올해 약 45.9%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7% 증가(7,349억 원 → 7,888억 원)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성 향상 지원은 2011년 2,188억 원, 2012년 3,561억 원, 2013년 4,167억 원 등 지난 2년간 연평균 약 39.5% 증가하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8.6% 증가한 4,527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지난해 30대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2012년 대비 약 17% 확대하여 환경개선, 공정효율화 등을 통한 협력사의 생산성 제고 추진에 600억 원을 확대 지원함
- (생산성 향상 지원사례) 포스코는 3정 5S, QSS, My machine 등 현장혁신활동을 포항·광양 공단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R&D 지원규모는 2012년 2,992억 원에서 2013년 2,724억 원으로 약 8.9%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8% 증가한 2,855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R&D 지원사례) 현대자동차는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R&D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품질기술봉사단의 2차 협력사 지도비중을 확대 (70% → 80%),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품질지도 전담조직 운영 등의 1·2차 협력사 성장 견인을 위한 기술·경영지원을 확대함
- (R&D 지원사례) LG는 협력사의 R&D 인프라 지원을 위한 휴먼특허를 공개하고, Open

Innovation·창조경제포털을 활용한 협력사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차세대 기술역량을 강화하며 창조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함

- 인재양성 지원은 2012년 487억 원에서 2013년 458억 원으로 약 5.9%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4% 증가한 506억 원이 지원될 계획임
- 인재양성 지원은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교육 강화, 동반성장 교육지원센터의 경영·기술교육 무상 개방 등 그 내용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임
- (인재양성 지원사례) 두산은 품질 명장 등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경쟁력강화지원단을 운영하고, 협력사 2세 경영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기업 보유의 노하우와 기술을 협력사에 지도하여 경쟁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앞장섬
- 아직까지 30대 그룹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애로해소 등 거시적인 측면에 약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성 향상(26.4%), R&D(16.6%), 인재양성(2.9%)에도 전체 지원의 약 45.9%를 유지하며 상당 부분을 지원함
- 이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과거 판매·구매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보증·대출 지원과 같은 시혜적 측면에서 점차 R&D,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등의 협력사 내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들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장기화되는 내수침체에도 4년 연속 증가하여,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의지가 크게 두드러짐
- (협력사 지원규모) 30대 그룹 협력사 지원규모는 8,922억 원(2010) → 15,356억 원(2011) → 15,571억 원(2012) → 15,942억 원(2013) → 17,161억 원(2014)으로 4년 연속 1조 5,000억 원을 유지함
- (협력사 지원 증가율) 전년 대비 협력사 지원 증가율은 1.4%(2012) → 2.4%(2013) → 7.6%(2014)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음
- 30대 그룹의 분야별 협력사 지원실적 중에서 판매·구매, 보증·대출, 해외 판로개척 등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R&D,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등 협력사 경쟁력을 위한 지원이 다소 늘어났음

- (분야별 지원비중)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해 판매·구매 지원, 보증·대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에 높은 비중을 두며[53.9%(2013) → 54.1%(2014)], R&D, 생산성 향상, 인재 양성이 차지하는 지원비중의 수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46.1%(2013) → 45.9%(2014)], 전체 지원금액의 증가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분야별 지원금액 증가율) 해외 판로개척(16.5%), 보증·대출(11.5%), 인재양성(10.5%), 생산성 향상(8.6%), 판매·구매(5%), R&D(4.8%) 順임

(2) 제언사항

- 대기업은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대·중소기업 모두의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해야 함
 -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앞장서고 성과공유 확대, 협력사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협력사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생력 향상을 위해 R&D, 설비 등에 투자하며 기업체질 개선에 주력해야함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나가는 생산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함
 - 좁은 내수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정부는 동반성장의 목표를 대·중소기업 간 생산적 파트너십 강화에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이 발휘하도록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 창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함
 -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반성장정책은 규제나 부담보다 기업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유도하여야 함
 - 성과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협력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2·3차 협력사 경영 혁신 지원 노력이 요구됨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2014.9.

한국은행, 「201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조사결과」, 2014.9.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8월 기업경기전망 실사지수」, 2014.8.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도 30대 기업집단 통계분석」, 2013.12.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30대 그룹의 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및 2013년 지원계획 분석」, 2013.6.